

# 〈운영전〉 궁녀집단의 사회적 성격과 작가의식\*

문범두\*\*

|| 차례 ||

- I. 서론
- II. 소설 공간으로서의 수성궁의 형상
- III. 궁녀집단의 인간관계와 작가의식
- IV. 관념사회의 당대적 의미
- V. 결론

## 【           】

본고는 수성궁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궁녀 집단을 하나의 사회 형상으로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논의를 통하여 수성궁의 사회는 일정한 방향의 작가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것은 당대 상황에 대한 인식 위에 설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수성궁 궁녀들이 운영의 애정행위에 대응하는 태도를 통하여 한 사회에서 집단과 개인 사이의 관계 설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적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 이합집산을 일삼는 현실의 경우와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존중심에 바탕을 둔 인간 관계이다. 다음으로, 남궁과 서궁의 궁녀들이 완사(浣紗)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벌이는 토론과정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개인의 다양한 의사가 존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견은 조율되고 갈등은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수성궁의 궁주는 안평대군이지만, 궁녀 사회를 하나의 집단 개념으로 본다면 주목해야 할 인물은 자란이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수성궁의 궁녀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사회는 파당적 이해관계가 첨예하던 당대의 정치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즉 수성궁은 당대적 모순이 극복되고 지양된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념적으로 설정된 그러한 사회 형상이 결코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인식이, 수성궁의 인적 관계를 애정의 파탄이라는 이야기에 실어 비극 서사로 표현한 작가서술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운영전 수성궁 궁녀 안평대군 애정소설 사회집단

## I. 서론

<운영전>에서 작중 인물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주요 사건을 이어가는 소설의 공간은 수성궁이다. 수성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서사의 대부분이 수성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궁주인 안평대군과 주인공인 운영 사이에 형성된 갈등구조의 성격을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기실 그 갈등구조는 작품의 전체 의미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미학적 기반이 되는 비극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수성궁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한 논의 중, 수성궁을 하나의 관념적 사회 형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본 작품을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궁주인 안평대군과 궁녀 10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성궁의 인물들이 맺고 있는 상호 관계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사회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들 인물들이 애정사를 두고 벌이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형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이념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지금까지 수성궁에 대한 논의는 운영과 김진사 사이에 벌어지는 애정서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당연히 미학적 특성을 결정짓는 비극적 기조는 남녀주인공의 애정이 파탄을 맞는 상황에 두고 있다. 그렇게 보면 수성궁은 남녀주인공의 결연 의지를 방해하는 압제와 폭력의 상징공간이 된다. 그러나 <운영전>은 중층적 액자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전체 서사구조의 차원에서 보면 그 비극성은 애정의 파탄과 함께 안평이 수성궁에 조성하려고 했던 문장왕국의 종막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적으로 몽유자 유영의 비극인식은 남녀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난 애정사와, 문장왕국의 종막과 함께 한 안평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성궁은 그 상실로 해서 몽유자의 비극적 정조를 일으킨 문필적 이상공간이 되는 것이다.<sup>2)</sup> 궁녀로서 자유로운 애정이 통제받는 것은 중세기 궁중 제도의 일반적인 속성이지만, 문필적 공간으로서의 수성궁은 새로운 작가의 지향을 수용하는 소설공간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애정서사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면 안평과 운영, 그리고 김진사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그 의미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

1) 기존의 논의에서는 수성궁을 중세적 질서를 갖춘 관념 사회로 이해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제98집, 국어국문학회, 1987;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제9집, 한성어문학회, 1990;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사, 1999.

2) <운영전>의 소설공간으로서 수성궁의 이러한 성격과 그 비극적 의미에 대해서는 필자가 선행논문을 통해서 자세히 논한 적이 있다. (문범두, 『<운영전>의 공간적 의미와 비극의 성격』, 『한민족어문학』 제7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본문 논의 과정에 서 이는 다시 언급될 것이다.

<운영전>의 전체적 의미체계가 안평의 몰락, 또는 그가 조성하려 했던 이상적 문장왕국으로서의 수성궁의 망실에도 관련되었다고 한다면 작품 이해의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없어져 폐허로 남았으나 실현되고 유지되었어야 할 원망(願望)의 세계, 즉 안평에 의해 조성된 그 이상적 관념공간의 실상을 좀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주요사건을 이끄는 애정사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성궁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안평과 궁녀, 또는 궁녀 상호간의 인물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기존 연구 중에는 궁녀 중 주요인물인 자란의 서사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sup>3)</sup>, 운영의 처지에 공감하는 동료로서의 여타 궁녀들에 대한 천착이 있긴 하였다.<sup>4)</sup> 궁녀들 사이의 인간적 교섭을 ‘자매애(姊妹愛, sisterhood)’로 여긴 경우는 궁녀들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한 다소 진전된 연구라 할 수 있겠다.<sup>5)</sup> 그러나 수성궁이 갖는 사회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상호관계를 애정서사의 맥락 속에서만 규명하거나 동성간의 특별한 애정형태로 여기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사회집단이라는 개념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운영전>을 애정서사를 포함한 작품전체의 의미구조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기존 연구의 성과에 미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극적 인식을 이끄는 또 다른 측면, 애정서사의 이면에서 보여주려 했던 망실된 안평의 문장왕국의 실상을 좀 더 정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안평의 왕국은

3) 엄기영, 『운영전과 갈등 상황의 조정자로서의 紫鸞』,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4) 정출현, 앞의 논문, pp.98-113.

5) 다음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차배옥덕, 『여성 자매애에 대한 일고찰-운영전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2000; 박현주, 『<운영전>의 여성인물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민정,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집단의 관계양상과 서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제59집, 민족문화사학회, 2015.

주로 궁녀집단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그것은 일정한 작가적 지향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품적 특성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당대 사회현실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 설정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운영전>은 애정서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애정과 사회라는 대응구조를 넘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적 문제의식을 배면에 깔고 있는 작품임을 천착하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이 논의의 결과를 통해서 <운영전>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sup>6)</sup>

## II. 소설 공간으로서의 수성궁의 형상

소설공간으로서 수성궁을 하나의 관념사회로 이해하는 것은 안평과 궁녀사이의 관계를 중세적 질서로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일용 교수는 수성궁이 ‘남녀주인공의 결합을 가로막는 중세적 세계관과 질서로서, 절대적인 애정장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sup>7)</sup> 이어 안평대군에 의해 주도되는 그 질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조선중기의 성리학적 세계관의 형상화’<sup>8)</sup>로 규정하였다. 수성궁이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 어느 시대 특정 사회형상을 관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이후 논자들에 의해 대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sup>9)</sup>

---

6) 본 연구의 텍스트는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第二版)』(朴熙秉 標點·校釋, 소명출판, 2007) 소재 <운영전>으로 한다.

7) 박일용, 앞의 논문, p.165.

8) 박일용, 앞의 논문, pp.170-171.

수성궁이 남녀의 애정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로 이해된 것은 궁이 왕조 시대 절대군주나 그 측친의 거처로서 중세적 권위의 상징이 된다는 일반적인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궁녀는 궁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무형의 궁중 법도를 지켜야 하는 존재이다. 당연히 궁주 외 타인과의 애정은 엄격히 금지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 논의에서 운영의 결연행위에 대한 장애로서 수성궁의 질서를 운위한 것은 결국 이러한 궁의 기본적인 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성궁은 인간의 자유로운 사유와 행동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중세 절대권위의 관념적 공간으로 해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평대군에 의해 경영되는 수성궁의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궁과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수성궁은 전통적 개념의 궁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장과 예능이 발휘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수성궁의 궁주인 안평대군은 유학에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문예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묘사된다. 맹시단을 쌓아 당대 문인재사들의 결집체로 삼는 한편, 성삼문과 같은 인재들을 두루 초치하여 시작(詩作)을 일삼고 예능적 재능을 다두고 있다. 궁녀들을 교육시킨 것은 우리 역사상 일찍이 달성하지 못한 최고의 시적 경지를 경험하고자 하는 안평의 문예적 취향과 관련이 있다. 김진사를 불러들인 것도 유학적 담론을 일삼자는 것이

---

9) 단지 이상구 교수는 수성궁의 질서가 조선중기 사림파의 성리학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거기에는 ‘일체의 세속적 삶을 부정하는 도가편향적 지향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이상구, 앞의 논문, p.142). 정출현 교수 역시 수성궁의 질서를 ‘인간의 진정한 삶을 훼손시키는 횡포’로 본 점에서는 기존 견해와 큰 차이가 없다(정출현, 앞의 논문, p.97). 그러나 안평대군과 궁녀들의 관계를 주군과 애첩의 관계를 넘어선 ‘시문을 통해 맺어진 특수한 군신관계’(위의 논문, p.95)로 보고, 따라서 수성궁에 구현하려는 질서를 ‘안평대군이 추구하던 정치적 이상의 은유’로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위의 논문, p.96). 즉 이 때의 수성궁은 안평대군 시대 그가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관념적으로 추구했던 사회형상을 보여주려 하였다는 것이다.

아니라 그의 시작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이다. 안평대군의 훈육을 받는 궁녀들의 일상을 보면 수성궁의 환경적 속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궁녀들은 도학적 성정수련에 힘을 기울이기 보다는 시를 짓는 데 마음을 쏟으면서 시를 소재로 토론하고 비평하는 것을 주요한 일과로 삼고 있는 것이다.<sup>10)</sup>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해 거듭 밝혀진 바로서 <운영전>의 미학적 기초를 이루는 것은 비극이다. 수성궁이 전통적 개념의 궁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마는, 한편으로 문장과 예능을 연마하고 닦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의 비극에 대한 이해방식은 달라진다. 즉, <운영전>의 비극성은 중세 궁중제도에 희생된 운영과 김진사의 운명적 죽음과 함께 안평이 그의 정치적 불우를 보상받으려고 조성한 문장왕국의 종막에도 관련되어 있다.<sup>11)</sup> 운영의 죽음은 궁녀들을 훈육시킴으로써 안평이 조성하려고 했던 문장왕국으로서의 수성궁이 궁극적 파탄을 맞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성궁은, 남녀주인공의 애정이 그러하듯 어떻게든 지키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하나의 이상적 지향을 반영하는 관념 사회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수성궁이 이념적 사회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의 작가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관념사회라면 주요인물인 안평과 운영뿐만 아니라 수성궁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다른 인물들로 관심의 범위를 확장시

---

10) 이상의 관점은 필자의 선행 논문의 일부 내용으로서, 여기서는 본고의 논지 전개를 위해서 그 대강만을 언급하였다(문범두, 위의 논문, pp.210-221).

11) 문범두, 위의 논문, pp.232-243.

12) 이종택자 구조를 통하여 구현되는 <운영전>의 비극은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비극을 포함하여, 안평이 수성궁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한 문장왕국의 종국적인 파탄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서사적으로 안평이 세워서 누리고자 한 문필과 예능적 공간의 상실로 표현되고 있지만, 작가적 전망이 망실되는 비극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문범두의 앞 논문 참조) 그렇다면 수성궁을,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할 가치의 전형이 아니라 추구하고 실현되어야 할 이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성궁을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간주하는 한, 궁녀들과 그들의 상호관계 역시 어떤 사회의 형상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단서를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안평은 궁녀들을 남궁과 서궁으로 나누어 거처하게 한다. 함께 있으면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게 궁녀 분리에 대한 안평의 이유였다.<sup>13)</sup>

“궁이 나누어진 후로는 다소 구분이 있게 되어 당나라 때 당파를 지어 다투었던 우승유(牛僧孺)와 이종민(李宗閔) 무리와 비슷하게 되었으니 어찌 그보다 하지 않을 수 있니?”<sup>14)</sup>

위는 서궁에 속한 자란이 운영의 애정사를 희롱하는 남궁의 소옥과 비경에게 한 말이다. 남쪽과 서쪽으로 나뉜 후로 두 궁 사이에는 당(唐)의 우승유와 이종민이 파당을 지어 싸움을 일삼았던 것과 같은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남궁과 서궁의 분리를 정치에서의 동서분당에 비유한 것이 흥미롭다. <운영전> 창작 시기인 17세기 중엽은<sup>15)</sup> 주로 광해군과 인조 재위기간으로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던 시기였다. 물론 작가가 수성궁의 궁녀집단을 당대 정치현실과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려 했는지는 당장 말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수성궁의 두 소집단을 통해 작가가 안평이라는 절대적 권위 하에서 운영의 애정사를 두고 벌이는 인간적 교섭과 갈등을 제한적으로나마 그리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 집단의 존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점일 것이다.

수성궁이 하나의 사회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서 어떤 실체적

13) 汝等十人 同在一室 業不專一 當分五人 之西宮.

14) 一自分宮之後 頗有形迹 有似唐時牛李之黨 何不爲其然也.

15) <운영전>의 창작 시기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으나 17세기 중엽 창작설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르기로 한다(신경숙, 앞의 논문, pp.57-59 참조).

형상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작가적 지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성궁은 ‘몽유도원도’에 묘사되거나<sup>16)</sup> 또는 도교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sup>17)</sup>과 같은 이상사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환상세계나 신선경과 같은 절대적 관념의 사회로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위에서 잠시 보았듯이 궁녀들 사이의 교섭을 통해 구현되는 인간관계는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 상호간의 문제라는 현실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것은 역사적인 실체 그 자체는 아니겠지만 현실의 의미망 속에서 포착될 수 있는 사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8)</sup> 다음에서는 그러한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문제의식과 관련성이 있는지가 이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 Ⅲ. 궁녀집단의 인간관계와 작가의식

#### 1. 인간적 교섭양상과 지향 방향

수성궁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인물은 매우 단순하다. 궁주인 안평과 운영을 포함한 궁녀 10인이 전부이다. 수성궁은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 소설공간이다. 수성궁의 사회가 문필을 토대로 한 문명사회로서 작가의 이상과 원망을 반영하고 있다면 궁녀들이 보여주는 인간적 교섭의 내용 역시 그러한 이상적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

---

16) 박일용, 앞의 논문, p.97.

17) 이상구, 앞의 논문, p.142.

18) 수성궁의 질서를 ‘조선중기 성리학적 세계관의 형상화’라 본 기존 견해(박일용, 앞의 논문, pp.170-171)는 본고의 입론 자체가 그와 다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형상의 역사, 사회적 의미망에 대한 접근방식은 이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운영의 애정사에 대응하는 궁녀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 양상을 확인하고 그것이 갖는 작가적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운영 자신은 그 사실을 부정했지만 궁녀들은 모두 운영이 대군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sup>19)</sup> 이는 운영이 다른 궁녀들과 다소 구별되는 입장과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집단적 차원에서 보자면 개인적 일탈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여느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견제가 가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시에 누군가를 사모하는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 운영이 대군에게 의심을 받은 후, 그날 저녁 궁녀 모두가 시품을 논하는 자리에서 운영만이 수심에 차 대화에 끼지 않은 모습을 본 소옥의 말이다.

“아까 지은 시로 주군께 의심을 받아 그 때문에 근심을 감추고 말하지 않니? 아니면 주군의 뜻이 이불 아래에 있는 줄 알고 가만히 기뻐하여 말하지 않는 거니? 네 마음 속 생각을 알 수 없구나.”<sup>20)</sup>

운영의 태도를 주군의 의심과 관련지우는 말도 덧붙여 있지만, 실제로 소옥은 운영이 자신에 대한 주군의 관심을 마음으로 즐기느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소옥의 이 말 이면에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모두 함께 하는 일에 끼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는 질책과, 주군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데 대한 질투심이 깔려 있다. 이와 같은 궁녀들의 태도는 나중에 남궁과 서궁으로 분리된 후 운영이 김진사와 벌이는 애정사를 대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운영과 김진사와의 관계를 이미 알게 된 비취가 굳이 운영에게 얼굴빛이 나빠지는 연유를 캐묻고는 이를 다른 말로

19) 大君未嘗有意於妾 而宮中之人 皆知大君之意 在於妾也.

20) 日間賦烟之詩 見疑於主君 以此隱憂而不語乎 抑主君向意 當有錦衾之歡 故暗喜而不語乎 汝心所懷 未可知也.

변명하는 운영에게 시를 지어 놀리기까지 한다.<sup>21)</sup>

그러나 운영의 일탈에 대한 다른 궁녀들의 대응은 위와 같이 가벼운 감정의 노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즉 그것이 집단의 보호라는 형식을 띠고 개인에 대한 인격적 공박이나 노골적인 배척과 같은 폭력적 성향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믿는 구성원에 대한 부러움과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공동체적 일체감에 흠을 낸 것에 대한 가벼운 원망이다. 오히려 나중에는 어떤 이유이든 같은 구성원에게 원망과 질투심을 지니게 된 데 대해 당사자인 궁녀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남궁의 소옥과 비경이, 빨래를 구실로 김진사를 만난 후 돌아오는 운영을 은근히 놀리는 시를 지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 위해 밤을 무릅쓰고 운영을 찾는다.

“낮에 준 시는 무심코 쓴 것이지만 시어에 놀리는 뜻이 있는 듯하여 밤 시간을 마다 않고 험한 길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과하러 왔어”<sup>22)</sup>

자란이 궁중에 갇힌 불쌍한 처지를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어 두 궁녀를 거둬 나무라자 그들은 자신들의 미망을 일깨워 준 데 대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다.

서궁의 궁녀들은 김진사와 별이는 운영의 위험하고 발칙한 애정행각을 같은 운명적 처지라는 유대감으로 감싸 안고 있으며, 공동운명체의 구성원에 대한 동료애적 연민으로 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궁의 궁녀들은 운영의 애정행각을 알고 난 후는 그 일을 자신들의 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안평이 운영의 애정사를 확인하고 치죄하여 장살하려

21) 翡翠微聞其語 佯若不知 而語妾曰 汝初來時 顏色如梨花 不施鉛粉 而有天然綽約之姿 故宮中之人 以虢國夫人稱之 比來容色減舊 漸不如初 是何故耶.

22) 日間之詩 出於無情 而言涉戲翫 是以不避深夜 負荊來謝耳.

할 때 서궁의 다섯 궁녀들이 보인 태도에서 이를 살필 수 있다. 서궁의 궁녀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빌미를 제공한 운영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운영의 애정사를 직접 주선하였던 자란은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있고, 은섬과 비취 역시 공동의 책임을 자처한다. 동료로서 운명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태도는 다음 옥녀의 발언에서 뚜렷하다.

“서궁의 영광을 첩이 이미 함께 했는데 서궁의 곤경을 첩이 혼자 피하겠습니까? 곤륜산에 불이 나면 옥과 돌이 함께 불타는 것인데 오늘의 죽음이 그러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sup>23)</sup>

서궁의 궁녀들이 운영을 위해 변호하고 저항하는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남궁의 소옥조차도 자신에게 죄를 묻기를 청하고 있다.

“전에 빨래하러 나갔을 때 성 안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첩의 의견이었습니다. 자란이 밤에 남궁에 와서 간곡히 청하기에 첩이 그 뜻을 가련히 여겨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에 따랐습니다. 운영이 지조를 지키지 못한 것은 그 죄가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컨대 주군께서는 첩으로 운영의 목숨을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sup>24)</sup>

소옥은 매년 행해지는 빨래 행사를 서궁 궁녀들의 바람대로 소격서 아래 냇가로 하는 데 동의해 주었다. 즉 운영이 김진사를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소옥은 청죄하는 것이다. 운영의 애정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일의 원인을 따져 자신의 책임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통의 사회집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가

23) 西宮之榮 妾既與焉 西宮之厄 妾獨免哉 火炎崑崗 玉石俱焚 今日之死 得其所死矣.

24) 前日浣紗之行 勿爲於城內者 妾之議也 紫鸞夜至南宮 請之甚懇 妾愜其意 排群議從之 雲英之毀節 罪在妾身 不在雲英 伏願主君 以妾之身 續雲英之命.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우선되고 집단의 결속력은 쉽게 허물어지게 된다. 물론 궁녀들이 운영을 위해 항변하고 죽음까지 달게 받아들여야 한 것은 궁녀로서의 처지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수성궁 궁녀들의 태도는 같은 궁녀로서 갖는 동료의식까지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에 대한 본성적 양심의 발현으로서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보다 차원 높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집단을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관습적이든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통해 개인적 욕망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거기에서 벗어나는 개인이 있다면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그에 대한 유, 무형의 압박이 행사될 것이다. 혹, 그러한 압박이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악의를 내포하고 있다면 공격적인 위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구성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인격적 존중과 상호간의 신뢰로 형성되어 있다면 내부의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집단 문화는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적인 유대와 결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단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에 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동력을 생산하기도 한다.

작가는 수성궁의 궁녀들이 운영의 애정행위에 대응하는 태도를 통하여 사회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설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의 이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 이해를 따져서 이합집산을 일삼는 현실의 경우와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존중심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말한다. 소설 창작 당대에 있어서 사회 집단 상호간의 알력은 물론이고 하나의 집단 내부에서도 인간 존중과 상호신뢰의 부족이 다양한 사회악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작가는 수성궁의 궁녀집단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가 불식된 이상적인 관념사회를 그려보려고 한 것이다.

## 2. 합의에 이르는 토론과정과 그 성격

완사장소 결정을 두고 벌이는 궁녀들 사이의 토론 과정은 전체서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남녀주인공 중심으로 단선적인 사건전개의 형식을 보였던 이전소설과 달리 서사에 입체감을 더하는 부분이다.<sup>25)</sup> 운영을 중심으로 한 애정 서사의 형식적 차원에서 보면 운영의 애정 행각에 대해서 궁녀들이 궁극적으로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그러나 수성궁을 하나의 사회형상으로 이해하면 궁녀들의 이 논쟁과정은 한 사회가 당면한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성궁을 소집단 사회라고 전제한다면, 남궁과 서궁으로 나뉜 뒤 두 집단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다. 하나의 사회 집단이 있다면 대개 한정된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음모와 사술, 당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는 타당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집단 전체의 힘이 소진되고 결국에는 공멸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자란의 말에서도 보았듯이 남궁과 서궁 사이에는 다툼을 일삼았던 당(唐)의 파당처럼 다소간의 의견 차이와 알력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떤 사회든 소집단 사이에는 이해득실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의 상충을 어떤 형식으로 극복하고, 견해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좁혀 상호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완사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논란을 벌이는 대목은 그러한 작가적 의도가 반영된 경우라 할 것이다.

남궁과 서궁의 궁녀들은 추석 때 완사(浣紗) 장소를 결정하는 일에서

25) 소재영, 『운영전의 비극성』, 『운영전』, 1985, p.152. 정출현 교수는 이 부분이 <운영전>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장면이라고 하였다(정출현, 앞의 논문, p.106).

26) 정출현, 앞의 논문, p.107.

매우 심각한 의견 차이를 드러낸다. 자란은 운영에게 소격서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왕래 중에 일전 진사의 편지를 전한 무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뿔하였다. 운영의 사정을 아는 서궁의 궁녀들이 소격서동을 행사 장소로 정하자고 하는 데 대해 남궁의 궁녀들은 탕춘대에서 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자란이 남궁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직접 남궁으로 찾아간다. 그러자 남궁의 의견을 주도하던 소옥은 자란을 유세꾼이라 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다.<sup>27)</sup> 자란은 소격서로 장소를 옮기려 하는 이유를, 조롱 속에 든 새와 같은 현재의 처지를 내세우는 벗어나게 해 달라고 태을사에 기원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 하고, 자신이 남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자란의 말에 대한 남궁 궁녀 다섯 사람의 대응은 한결같지 않다. 어떤 일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찬성, 반대, 유보, 기권 등의 다양한 태도를 두루 포괄한 듯하다. 자란의 말에 찬성하는 사람은 소옥과 금련이다. 부용은 소격서로 가고자 하는 자란의 견해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보련은 토론의 과정 자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금련은 주역 점으로 운세를 짚어보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빨래하는 행사에서 아예 빠지겠다고 한다.

궁녀들의 견해는 비록 각각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나름의 분명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선, 소옥은 자신이 처음 반대한 이유가 도성 안에서 행사를 할 경우 무뢰배들에게 뜻밖의 폭력을 당할까 염려한 데 있었는데, 자란의 설명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찬성한다고 하였다. 부용은 해마다 하는 행사를 올해 바꾸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등의 다섯 가지 이유를 내세워 자란의 견해에 반대하고 있다. 보련은 자기가 토론 자

---

27) 小玉曰 何謝之有 此乃說客也.

체를 거부한 것은 논의를 이어가는 궁녀들이 사안의 핵심은 버려둔 채 걸치체에 연연하거나 변죽만 울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금련은 다른 사람들의 논의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것을 구실로 주역 점을 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다소 이색적이지만 전통사회에서 어떤 사안의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사참여를 거부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은 대군의 명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처럼 궁녀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택한 결정에 대해 나름의 분명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사적 감정에 의존하거나 과당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이유 때문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사 장소를 소격서로 정하고자 하여 자란이 제기한 의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매우 뚜렷하여 결론 없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닥으로 나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한 논리도 점패로 얻어지는 신탁도 아닌 같은 운명공동체로서의 깊은 신뢰와 인간적 정리임을 볼 수 있다.

“... 아! 자란아, 너는 운영의 친구인데,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제단 위에 두는 것도 난감한 일일거야. 오늘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저승에 가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 원망이 남궁으로 돌아올 거야. 『서경』에 말하기를 ‘좋은 일을 하면 하늘이 백가지 상을 내리고, 좋지 못한 일을 하면 하늘이 백가지 벌을 내린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겠니?”<sup>28)</sup>

논의의 결론을 내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자란이 실망하여 자리를 떠나려

28) 嗚呼 紫鸞雲娘之友也 欲以垂死之人 置之於天壇之上 不亦難哉 今日之計 若不得成 則泉壤之下 死不瞑目 怨歸南宮 其有既乎 書曰 作善降之百殃 不善降之百殃 今此之論 善乎 不善乎.

고 하자, 이미 금련의 주역 점으로 운영의 형편을 알게 된 비경이 울며 말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반대하는 궁녀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마음을 바꾸는 것을 민망히 여겨 선뜻 찬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속내를 눈치 채 자란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의 일에는 정도(正道)가 있고 또 권도(權道)라는 것도 있는데, 권도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것 역시 정도이다. 어찌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부리는 권도를 쓰지 않고 앞의 말한 것에 집착하려 하니?<sup>29)</sup>

위 인용문은 『맹자』의 정도와 권도의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sup>30)</sup> 반대한 궁녀들도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했으니, 비록 금련에 의하여 운영의 일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또 비경의 절실한 호소가 있었다 하나 금방 마음을 바꾸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란은 이를 꿰뚫어보고 그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을 『맹자』에서 찾아 제공함으로써 이 토론은 우호적인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이상 자란과 남궁 궁녀들 사이의 이 토론 과정은, 집단 사이의 견해 차이가 현격할 때 이를 조정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이들 사이의 논란을 통하여 보여주려 한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주장이나 판단을 할 때 그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라는 것이다. 둘째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해 당사자들은 그 원인을 남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찾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자기 주장을 철회할 줄 아는 아량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넷째는 승자는 타인의

29) 天下之事 有正有權 權而得中 是亦正矣 豈無變通之權 而膠守前言乎.

30) 『맹자』 <離婁章句> 上.

입장과 형편을 짐작하여 자존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존재방식에 있어 어떤 형식의 의제에 대해 찬동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찬반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이견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궁녀들은 결과적으로 안평의 치죄에 대해 운영의 입장을 옹호하고, 궁녀의 처지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내세우게 된다. 이는 운영의 애정을 두고 이미 심각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결론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회 역시 건전한 형태의 토론과정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이견은 조율되고 극복될 수 있고, 결국 사회공동선을 축적해 갈 수 있다는 작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자란'과 지도자 형상

이상에서 필자는 수성궁의 궁녀들의 인간적 교섭 양상을 통해 사회집단의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형상을 그려보려는 작가 서술적 의도를 유추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사회 집단을 유지, 존속시키는 데에는 공동 운명체라는 유대감과 동료애적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임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사회 집단간의 다양한 이견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집단의 공통 이익으로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다시 하나의 사회 집단의 발전을 보장하는 요소를 든다면 그것은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성궁의 궁주는 안평대군이지만, 궁녀 사회를 하나의 집단개념으로 본다면 주목해야 할 인물은 자란이다. 자란은 자신이 속한 서궁 궁녀들을 이끄는 리더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수성궁을 하나의 이상사회라 할 때 그러한 면모를 가장 구체

적으로 실현하는 인물형상으로서의 자란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자란은 궁녀 10인 중에서 운영을 제외하고는 그 서사적 비중이 가장 높다. 운영이 김진사를 사모하는 일로 근심할 때 이를 알아채고 채근하여 그 전말을 전해 듣는 장본인이다. 또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는가 하면, 운영의 행동에 대해 충심의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평이 운영의 애정 행각을 알아채고 문초할 때는 그녀를 위해 변호하고, 스스로 그 벌을 대신받기를 자청하기도 한다. 자란의 이러한 서사적 역할을 안평과 운영 사이에 형성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 기존의 연구도 있다.<sup>31)</sup> 자란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갈등의 조정자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란의 서사적 역할은 이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성궁의 인적 관계를 사회 형상으로 이해할 때 자란의 지위와 그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자란과 운영과의 관계는 기존 논의에서 자매애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매우 특별하다.<sup>32)</sup> 자매애는 친자매 사이에 형성되는 친밀도가 여타 다른 가족이나 사회 내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높고 견고한 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환경 하에서 혈연관계가 아닐지라도 여성들 상호간에 맺어지는 감정적 교감이 친자매와 유사할 정도로 밀접한 경우라면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이면에는 남성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들이 서로간의 형편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을 나누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궁녀들이 심궁에 갇혀 보통의 여성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정을 나눌 피붙이의 만남도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서로간의 친밀감은 친자매 이상으로 더욱 각별했을 것으로 본다.

---

31) 엄기영, 앞의 논문, pp.384-393.

32) 본고 각주 6) 참조.

듣기로, 소격서는 천황을 제사하는 곳이라 하더라. 그래서 마을 이름이 삼청동이라. 우리 열 사람은 반드시 삼청궁의 선녀였다가 황정경을 잘못 읽어 인간에 귀양 온 것일 거야. … 그러나 우리 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 적막한 깊은 궁중에 일생 갇혀서, 꽃 피는 봄, 달뜨는 가을이면 등불과 마주하여 애를 태우며 헛되어 청춘의 시절을 허비하다가 부질없이 저승의 한스러움만 남기니 운명의 기구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인생이 한 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는 것. 너가 생각해 본들 어찌 슬프지 않는가? … 무릇 우리 궁녀들은 그 정이 자매와 같은데 이 하나의 일로 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구나.<sup>33)</sup>

자란이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을 위해 매년 하는 빨래 행사의 장소를 옮겨 소격서에서 하고자 하여 남궁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부분이다. 남궁의 궁녀들이 자란의 뜻을 의심하자 자란은 자신들이 함께 전생의 삼천궁녀였다가 이제는 심궁에 갇힌 기구한 운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자란의 주장은, 같이 혈연으로 맺어진 동기간, 즉 자매와 같은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똑같이 외로운 처지에 빠진 형편인데 서로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란이 남궁 궁녀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질적 집단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집단 상호간에 통효되는 공동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차이점을 숨기고 공통점만 부각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나와 남을 공동 운명체적 필연성이라는 존재론적 지향성, 즉 이념적 연결고리로 묶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을 단순히 설득시키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를 실현

33) 吾聞昭格署乃祭天星之處 而洞名三清云 吾儕十人 必是三清仙女 誤讀 黃庭經 謫下人間 … 吾等十人 獨有何罪 而寂寞深宮 長鎖一身 春花秋月 伴燈消魂 虛拋青春之年 空遺黃壤之恨 賦命之薄 何其至此之甚耶 人生一老 不可復少 子更思之 寧不悲哉 … 凡我一宮之人 情若同氣 而因此一事 疑人於不當疑之地。

하는 방식으로 상호연대를 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란이 자매애를 내세운 것은 남궁의 궁녀들과 하나의 존재적 터전을 지닌 동일운명체로서,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지도자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결국 남궁 궁녀들도 운영의 처지에 공감하게 되고 운영과 김진사와의 만남을 위한 자란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자란의 사회집단 리더로서의 자질은 개인과 집단 간의 생길 수 있는 욕망의 부조화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방식을 통하여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즉 개인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면서도 그것이 전체 집단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진사와 먼 곳으로 도망하려는 운영을 설득하는 자란의 발언이다.

“서로 만난 지 오래 되었다 하나 어찌 이렇게 빨리 회를 재촉하는 거니? 한 두 달 서로 사귀는 것으로 충분한데 담을 넘어 도망을 가다니, 어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한단 말인가? 주군께서 너에게 마음을 주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떠날 수 없는 첫째 이유요, 대군 부인께서 깊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떠날 수 없는 둘째 이유야. 그리고 화가 너희 부모님께 미칠 것이니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이고, 죄가 서궁 전체에 미칠 것이니 떠날 수 없는 넷째 이유이지. 또 친지가 하나의 그물망 같은데 하늘로 솟고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어디로 도망하려고 하니?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 그 화가 너 몸에만 그칠 뿐이겠니? 꿈자리가 불길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설사 좋은 꿈이라 하더라도 너는 갈 수가 있는 것이니? 마음을 억누르고 뜻을 접어 정절을 지키며 평안히 앉아 하늘의 뜻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거야. 너가 만약 나이가 들어 미색이 덜해지면 주군의 사랑도 점점 줄어들겠지. 그 때를 보아서 병을 구실로 오래 자리에 놓게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실 거야. 그러면 낭군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가 더불어 해로하면 그보다 좋은 계획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니? 지금 너의 계획으로는 비록 사람을

속인다 해도 하늘은 속일 수 없어.”<sup>34)</sup>

자란은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시켜가면서까지 운영과 김진사와의 결연을 적극적으로 주선한다. 그러나 막상 운영이 김진사와 담을 넘어 도망가고자 할 때 위 인용에서 보듯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 그 부당함을 분명히 한다.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도 집단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도자는 구성원 개인이 자기 이해에 몰입되어 전체집단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분별심을 잃게 될 때 이를 일정한 수준에서 통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냉정한 현실 판단을 바탕으로 개인과 집단이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자란은 운영의 애정 행위를 이해하고 그 실현을 위해 도와주되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본성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게 하고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지도자가 다양한 지향의 구성원 개개인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 가는 최우선 요건은 술선수법에 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의 불이익까지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란한 수사를 동원한다 해도 전체 구성원의 신임을 얻기는 어렵다. 작가는 자란의 이러한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34) 相歡日久 無乃自速禍敗耶 一兩月相交 亦可足矣 踰牆逃走 豈人之所忍爲也 主君傾意已久 其不可去 一也 夫人慈恤甚重 其不可去 二也 禍及兩親 其不可去 三也 罪貽西宮 其不可去 四也 且天地一網罟 非陸天入地 則逃之焉往 倘或被捉 則其禍豈止於卿子之身乎 夢兆之不祥 不須言之 而若或吉祥 則汝肯往之乎 莫如屈心抑志 守靜安坐 以聽於天耳 娘子若年貌衰謝 則主君之恩眷漸弛矣 觀其事勢 稱病久臥 則必許還鄉矣 當此之時 與郎君攜手同歸 與之偕老 則樂莫大焉 今不此之思 而敢生悖理之計 汝雖欺人 欺天乎.

오늘의 일은 그 죄를 헤아릴 수 없으니 마음속에 품은 바를 어찌 차마 숨기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여염집의 비천한 여자로서 아버지가 순(舜)임금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황(娥黃)과 여영(女英)이 아닌데 어찌 남녀간의 정욕이 없겠습니까? 주(周)나라의 천자인 목왕(穆王)도 매번 요대(瑤臺)의 서왕모와 함께 즐긴 것을 생각하고, 영웅인 항우도 장막 속 우희와의 이별에 눈물을 금하지 못했는데 주군께서는 어찌 운영만이 사랑의 정이 없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김진사는 요즘 세상의 단정한 선비입니다.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은 주군이 하신 일입니다. 운영에게 벼루를 받들게 한 것은 주군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운영이 오랫동안 깊은 궁에 갇혀 가을달 봄꽃에도 매양 깊이 상심하고, 오동잎에 비 듣는 날이면 자주 애가 끊어졌습니다. 한번 호남자를 본 후로는 마음이 녹고 정신이 달아나 병이 뺏속에까지 드니 어떤 명약이라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아침 이슬처럼 죽게 된다면 주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을 가진 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첩의 어리석은 생각에 한번 김진사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게 하여 두 사람의 맺힌 한을 풀어준다면 대군의 선행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운영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 죄가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첩의 이 한마디 말씀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는 동료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로 죽는 것도 영광일 것입니다. 운영의 죄를 속할 수 있다면 백번 죽어도 좋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주군께서는 저로써 운영의 목숨과 바꾸어 주십시오.<sup>35)</sup>

자란의 관점에서는 김진사와 운영이 서로 사랑하게 된 연유가 안평에

---

35) 今日之事 罪在不測 中心所懷 何忍諱之 妾等閭巷賤女 父非大舜 母非二妃 則男女情欲 何獨無乎 穆王天子 而每思瑤池之樂 項羽英雄 而不禁帳中之淚 主君何使雲英獨無雲雨之情乎 金生 人中之英 引入內堂 主君之事也 命雲英奉硯 亦主君之令也 雲英久鎖深宮 秋月春花 每傷性情 梧桐夜雨 幾斷寸腸 一見豪男 喪心失性 病入骨髓 雖以長生之藥 越人之手 難以見效 一夕如朝露之溘然 則主君雖有惻隱之心 顧何益哉 妾之愚意 一使金生得見雲英 以解兩人之怨結 則主君之積善 莫大乎此 前日雲英之毀節 罪在妾身 不在雲英 妾之一言 上不欺主君 下不負同儕 今日之事 死亦榮矣 雲英之罪 如何贖乎 人百其身 伏願主君 以妾之身 續雲英之命矣.

있다는 것이다. 남녀간의 정욕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함께 하게 했으니 그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항변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치죄하려는 주군의 처사가 오히려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상은 집단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겁박하는 외부의 불의한 세력에 대해 다른 구성원을 대신해 죽음을 불사하고 저항하는 것은 한 집단의 지도자가 지닐 수 있는 최선의 덕목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운영의 월장 행위가 자신이 부추긴 결과라는 이야기이다. 실제적인 책임은 사건의 당사자 본인에게 있는 바이지만, 다른 사람의 책임마저도 대신 지려는 이러한 술선수범의 희생정신은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얻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작가가 자란이라는 인물을 창조한 것은 안평대군의 문필적 사회가 애정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백분 보장하되, 그것이 일정한 통어의 방식으로 질서화,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생각을 하나의 이념적 지향으로 묶을 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내적인 동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도자가 앞서 술선수범할 때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게 됨을 자란의 성격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IV. 관념사회의 당대적 의미

이상에서 수성궁의 궁녀들이 운영의 애정사에 대응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적 교섭과, 그것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궁녀들 사이의 이러한 인간관계는 애정서사의 차원에서 보면 궁녀들이 운영의 행위에 공감하고 남녀간의 결연

을 가로막는 중세적 가치에 함께 항거하는 과정이다. 즉, 궁녀들이 운영의 일을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을 폭을 확장해 감으로써<sup>36)</sup> 안평으로 하여금 운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궁녀 모두가 겪는 인간적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성궁을 안평이 조성하려는 문장과 예능의 성취공간으로 볼 때 이들의 관계는 이상사회에 대한 작가적 전망을 드러내게 하는 장치가 된다. 비록 그것이 애정서사의 배면에 있긴 하여도 이 작품의 비극적 서사형식을 염두에 둔다면<sup>37)</sup>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따라서 수성궁의 인간관계는 부정적 속성들이 극복된 하나의 관념적 사회 형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상 사회에 대한 서술의식은 작가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어떤 형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운영전>은 17세기 초·중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sup>38)</sup> 이 시기는 훈구세력과의 대결 국면에서 사림의 존재적 실체를 보장받으려던 시대적 문제의식을 안고 있었던 때라고 볼 수는 없다.<sup>39)</sup> 16세기 말은 이미 사림이 정치무대를 석권하였고, 선조(宣祖) 초기 동서분당으로부터 야기된 조야의 이견투구가 국가사회 전반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시기였다. 당파간

36) 정출현 교수는 궁녀들과 운영의 관계양상을 운영의 비극적 자기인식이 다른 궁녀들에게로 점차 감염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출현, 위의 논문, pp.104-113).

37) 작품의 비극성이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의 파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죽음으로 인한 안평이 조성한 문장왕국의 종막에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한다(문범두, 앞의 논문, pp.232-243).

38) 신경숙 교수는 운영전의 창작시기가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1616에서 1641년 사이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창작시기 추정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본고도 이에 따른다.

39) 즉 소설 창작 당대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기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수성궁으로 관념화된 사회를 성리학적 질서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의 대립이 가장 첨예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예송논쟁의 단초를 여는 환경적 조건이 사회 전반에 이미 만연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sup>40)</sup> 문제는 당과 사이의 알력과 의견대립이 자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타당에 대한 공격적 위해로 나타나면서 급기야는 외세의 침략을 불러들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악을 생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안평이 수성궁의 궁녀들을 남궁과 서궁으로 나누어 그들 사이의 제기되는 미묘한 인간적 관계와 사회집단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은 파당적 이해관계가 첨예하던 당대 사회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수성궁의 궁녀집단을 이루는 궁녀 개인이나 남궁과 서궁이라는 소집단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이상적인 사회집단의 형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파로 나뉘어 끊임없는 대립과 쟁투를 일삼았던 당대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상층지식인 사회가 보여주는 인간적 알력과 갈등이 사회 발전의 암적 요소가 되고 있다는 작가적 인식의 반영이다. 그러한 사회악이 일소된 수성궁의 이상사회가 몽중의 관념화된 형태로 비극적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 상황에 대한 작가 서술적 인식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안평대군을 굳이 이상적 관념사회의 중심인물로 소설 속에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조선 개국 후 최고의 문명시대는 세종조로 보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세종의 아들로서 정치에 의지를 두었지만 수양대군에 의해 그 뜻이 꺾인 사실은 안평이 정치적 비극을 겪은 인물로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안평이 문필과 예능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상적 문명국가의 군주로 상정하기가 매우 용이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필적 의취와 남녀간의 애정은 감성적으로 먼 거

40) 1차 예송논쟁은 1659년 효종 승하 후 조대비의 복상문제로 일어났다.

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수성궁의 애정사에 관념적 사회형상을 직조한 작가적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 작품에서 일부 논자의 주장처럼 작가가 안평대군의 불우를 이쉬워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단지 그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작품의 비극적 성격을 애정서사의 관점으로만 단선적으로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평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로서는 궁녀에 대한 교육 등 대개 그의 문필적 성향 정도를 들고 있을 따름이다. 작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안평에 대한 호의적인 서술태도는 그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서사세계 전반에 두루 걸쳐서 나타난다. 안평이 파당적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문장과 학문을 국가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 유학의 가르침에 가장 근접한 자질을 갖춘 모습에 대해서는 거듭 언급되었다. 그와 함께 눈여겨 볼 대목은, 특히 그가 성삼문을 특별히 가까이 하고 그의 문장을 높이 사고 있는 점이다. 성삼문은 수양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여 계유정난으로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죽음을 맞은 사육신의 일인이다. 안평 당대에 문장이 높은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작품에서 궁녀의 시를 감식하게 하는 등으로 성삼문을 서사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은 안평의 정치적 성향을 이로써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적 의도가 반영된다. 이는 결국 안평이 군주로서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절의가 높고 명분이 분명한 사람을 가려 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삼문의 경우처럼 태평성대를 이끄는 군왕의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신하를 가려 쓰는 데 있다면 안평이 김진사를 가까이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특별한 배경이 없는 김진사를 오로지 문장이 뛰어나다 하여 수성궁에 불러들여 수작하고 토론하는 상대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궁녀들을 문책하는 태도에서 보이는 안평의 모습은 또 다른 군왕의 덕목을 은연 중에 표현하는 것이다. 운영이 궁중의 의복과 패물을 실어 나른 사실을 확인한 후 서궁의 궁녀를 치죄하는 자리에서 안평은 궁녀들 모두에게 자신의 뜻을 충분히 진술케 한다. 죄를 가리고 벌을 주려할 때 그 이유와 원인을 따져 물어서 사정을 충분히 소명케 하는 것도 치리자의 덕목일 것이다. 궁녀들의 입장을 모두 듣고 사실상 운영을 용서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완고하게 법도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면에 있는 인간적 가치를 소중히 여겨 관용하고 배려하는 태도 역시 군왕이 갖추어야 할 품성이기 때문이다.

안평을 수성궁이라는 관념적 사회집단의 중심으로 둔 것은 그의 군왕적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작가서술적 의도라 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이해하자면 안평을 이렇게 그린 것은 당대 왕의 통치능력에 대한 깊은 실망감의 우회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창작 당시 작가는 선조대와 광해군조를 거쳐오면서 군왕의 부족한 자질이 국가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과 역기능을 충분히 듣고 또 목도하였을 것이다. 작가는 수성궁의 군주로서 안평을 설정함으로써, 또 그의 군주로서의 여러 덕목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군왕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 볼 인물은 자란이다. 자란은 애정 서사의 중심인물로 성격화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자란의 그런 성격은 일면 당대 사회 국가통치에 참여하는 상층지배계층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우의적으로 표현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애정 서사의 이면에 위치하게 하면서 한 이상적인 군왕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야의 상충되는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치세의 역량을 드러냄으로써 국가기틀의 기반을 조성하는 군주로서의 역할을 자란의 성격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성궁은 기존의 논자들의 견해처럼 절대권위자의 강압과 폭력으로 조성

된 경직되고 음울한 사회의 전형이 아닌 셈이다. 유학적 식견이 깊을뿐더러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한 문장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는 17세기를 살았던 한 문사가 조선조 문화적 최극성기라 할 수 있는 세종의 시대를 이어서 그 문화적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안평대군을 주인공으로 한 지극히 낭만적인 사회를 그려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창작 당대는 과당적 이해관계가 외세의 침공을 불러들이는 극단적인 모순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치국치민에 대한 군주의 역량에 회의가 증대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운영전>의 작자는 이런 모순이 극복된 이상적 사회를 꿈꾸었을 것이고, 그것을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관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관념적으로 설정된 이상사회를 결코 현실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 그것을 남녀간의 애정의 파탄이라는 애절한 이야기에 실어 비극서사로 표현한 작가서술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운영전의 구성을 이끄는 중심 서사는 애정담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수성궁이라는 관념적 사회집단을 설정하고 당대적 모순이 극복되고 지양된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운영전은 어떤 양식의 글로도 접근할 수 없는 당대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전>의 이런 양면성을 이해할 때 그 작품 세계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 V. 결론

이상에서 궁녀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작가가 그려내고자 한 사회형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작가적 전망을 어떤 형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대적 상황에 대한 어떠한 인식 위에 설정되고 있는지를 확

인하였다.

안평대군에 의해 경영되는 수성궁은 전통적 개념의 궁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장과 예능이 발흥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수성궁의 궁주인 안평대군은 유학에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문예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묘사된다. 궁녀들은 도학적 성정수련에 힘을 기울이기 보다는 시를 짓는 데 마음을 쏟으면서 시를 소재로 토론하고 비평하는 것을 주요한 일과로 삼고 있다. 이미 여러 논저들에 의해 거듭 밝혀진 바로서 <운영전>의 미학적 기초는 비극이지만, 수성궁이 문장과 예능을 연마하고 닦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의 비극에 대한 이해방식은 달라진다. 즉, 운영의 죽음은 궁녀들을 훈육시킴으로써 안평이 조성하려고 했던 문장왕국으로서의 수성궁이 궁극적 파탄을 맞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문장왕국은, 어떻게든 지키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하나의 이상적 지향을 반영하는 관념 사회로 이해될 수 있다.

수성궁에서의 운영에 대한 다른 궁녀들의 대응 태도는 집단 내부의 인간 관계가 지니는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궁의 궁녀들은 김진사와 벌이는 운영의 위협하고 발칙한 애정행각을 같은 운명적 처지라는 유대감으로 감싸 안고 있으며, 공동운명체의 구성원에 대한 동료애적 연민으로 관용하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에 대한 본성적 양심의 발현으로서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인간애를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성궁을 소집단 사회라고 전제한다면, 남궁과 서궁으로 나뉜 뒤 두 집단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흥미로운 내용이다. 어느 사회든 한정된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득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간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의 상충을 어떤 형식으로 극복하고, 견해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좁혀 상호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남궁과 서궁의 궁녀들은 추석 때 완사(浣紗) 장소를 결정하는 일은 한 집단 내부에서 어떤 일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찬성, 반대, 유보, 기권 등의 다양한 태도를 두루 포괄한 듯하다. 궁녀들의 견해는 비록 각각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나름의 분명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사적 감정에 의존하거나 과당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이유 때문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다. 즉, 수성궁을 하나의 사회형상으로 이해하면 이 토론과정은 한 사회가 당면한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다시 하나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능력이다. 물론 수성궁의 궁주는 안평대군이지만, 궁녀 사회를 하나의 집단개념으로 본다면 주목해야 할 인물은 자란이다. 우선, 자란이 남궁 궁녀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질적 집단을 아우르는 방법으로 집단 상호간에 통효되는 공동의 가치를 설정하는 점이다. 자란이 자매애를 내세운 것은 남궁의 궁녀들과 하나의 공통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란의 사회집단 리더로서의 자질은 개인과 집단 간의 생길 수 있는 욕망의 부조화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자란은 운영의 애정 행위를 이해하고 그 실현을 위해 도와주되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본성을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회복불능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란이 보인 술선수범의 희생정신은 집단의 지도자가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얻게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작가가 자란이라는 인물을 창조한 것은 안평대군의 문필적 사회가 애정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백분 보장하되, 그것이 일정한 통어의 방식으로 질서화,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수성공을 안평이 조성하려는 문장과 예능의 성취공간으로서 하나의 이상사회로 볼 때 그것은 작가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어떤 형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운영전>은 17세기 초중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평이 수성공의 궁녀들을 남궁과 서궁으로 나누어 그들 사이의 제기되는 미묘한 인간적 관계와 사회집단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은 파당적 이해관계가 첨예하던 당대 사회를 전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수성공은 17세기를 살았던 한 문사가 조선조 문화적 최극성기라 할 수 있는 세종의 시대를 이어서 그 문화적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안평대군을 주인공으로 한 지극히 낭만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창작 당대는 파당적 이해관계가 외세의 침공을 불러들이는 극단적인 모순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치국치민에 대한 군주의 역량에 회의가 증대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운영전>의 작자는 이런 모순이 극복된 이상적 사회를 꿈꾸었을 것이고, 그것을 수성공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관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관념적으로 설정된 이상사회를 결코 현실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 남녀간의 애정의 파탄이라는 애절한 이야기에 실어 비극서사로 표현한 작가서술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민정,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집단의 관계양상과 서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제59집, 민족문화사학회, 2015, pp.183-215.  
 문범두, 「운영전의 공간적 의미와 비극의 성격」, 『한민족어문학』 제7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165-171.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제98집,

국어국문학회, 1987, pp.1-65.

박현주, 「<운영전>의 여성인물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朴熙秉, 標點·校釋『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第二版)』, 소명출판, 2007.

소재영, 「운영전의 비극성」, 『운영전』, 1985.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제9집, 한성어문학회, 1990, pp.55-84.

엄기영, 「운영전과 갈등 상황의 조정자로서의 紫鸞」,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pp.384-393.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133-176.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사, 1999.

차배옥덕, 「여성 자매애에 대한 일고찰 - 운영전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s Relationship  
and Social Meaning of <Wunyung-Jun>

Moon, Beom-d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Character's relationship of <Wunyung-Jun>, one of the most famous classical novels in Josun Dynasty. Especially, the court ladies' group in the Susung Palace, the main story place of this novel, will be considered as a society. Till now, most reserchers have regarded the Susung Palace as the symbol of absolute power in the middle age. But I pointed out the place has the meaning as the center of literature and art in my previous paper. Looked at from that point of view, the Susung Palace means the ideal world which we want to get to.

first of all, we can find the meaning of relationship between group and individual through Wunyung's love with her boyfriend, Kim Jinsa. That is the human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the respect for others. Second, through the debate to decide place for washing clothes, the writer suggest the method for dealing with social agenda. It means that the respect for various opinions make the social conflict over come. Finally, the society show the virtue which a leader have to prepare. Jaran is a leader of court ten ladies in Susung Palace. Her behavior show the leader of a group have to have the special ability for leading group members.

Court ladies' society of SuSung Palace are related to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at age which caused the sharp conflict between several parties. Therefore, Susung Palace means the most ideal society which become to overcome the social problems.

Key Word: Classical novel Palace Agenda Josun Relationship

이름 : 문범두

소속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자우편 : bdmooon@gntech.ac.kr

이 논문은 2017년 2월 9일 투고되어  
2017년 3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3월 10일 게재 확정됨.